



2015 기회 어젠다: 경제 기회 회복

제목: 중산층 가족을 위한 재산세 경감

일자: 2015년 1월 14일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“2015 기회 어젠다”의 첫 조각으로서 감면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경감을 제공하는 16.6억 달러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.

지난 수 십년에 걸쳐 뉴욕주 재산세는 역사적 수준으로 올랐습니다.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가족들에게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한 때 아메리칸 드림 달성의 상징인 집을 살 여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여유가 있느냐였습니다.

전주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가혹한 재산세 무계에 시달리는 중 및 저 소득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세금 감면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.

주지사의 재산세 상한과 재산세 동결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 새 안은 재산세 부담이 소득의 6%를 초과하는 가구를 위한 부동산세 감면을 신설함으로써 니즈가 가장 큰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.

소득이 \$250,000 미만인 납세자가 이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며, 감면액은 재산세가 6% 부담 경계를 초과하는 액수의 최대 50%입니다. 그 50% 이내의 구체적 감면액은 누진 소득 스케일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금 부담이 가장 높거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뉴욕주인들의 감면액이 가장 클 것입니다.

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되면 130만 여명의 뉴욕주 납세자들이 평균 \$950를 감면 받을 것입니다. 뉴욕시 바깥의 경우, 세금 상한 준수 관할지가 부과하는 세금만 감면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 감면이 단계적으로 제4년째에 완전히 도입되면 이 새 안으로 인한 총 납세자 혜택은 년 16.6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.

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 소유자의 수와 예상되는 감면액뿐만 아니라 구체적 감면액을 결정하는 누진 소득 스케일의 세분을 나타내는 지역별 명세가 아래에 있습니다:

| 지역 | 수혜자 | 평균 감면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전주 | 1,311,567 | \$956 |
| 뉴욕주 북부 | 543,299 | \$781 |
| Nassau 카운티 | 207,250 | \$1,208 |
| Suffolk 카운티 | 125,167 | \$1,148 |
| 기타 다운스테이트 교외 | 226,267 | \$1,119 |
| NYC 주택 소유자 | 209,584 | \$872 |

| 소득 계층 | 경계 (소득의 퍼센트로서의 재산세) | 감면액 (백분율은 경계를 넘는 액수에 적용됨) | 최대 감면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\$75,000 미만 | 6% | 50% | \$2,000 |
| \$75,000 - \$150,000 | 6% | 40% - 50% | \$1,500 - \$2,000 |
| \$150,000- \$250,000 | 6% | 15% - 40% | \$1,000 - \$1,500 |

2011년 전주 재산세 상한은 주 전역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. 상한 제도 첫 3년 동안 평균적 재산세 납부자는 세금이 이전 평균 성장율로 계속 성장한 경우에 비해 \$800 이상을 절약했을 것입니다.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절약액은 2017년까지 지역 재산세에서 \$2,100로 증가할 것입니다.

작년에 제정된 재산세 동결은 뉴욕주 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적 감면을 제공합니다. 이

프로그램으로 3년에 걸쳐 직접적 재산세 감면액이 1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, 평균적 뉴요커는 약 \$656를 받을 것입니다. 또한 동결은 지역 정부와 교육구가 효율성을 모색하여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주의 높은 재산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합니다.

주지사의 세금 감면안은 또한 년 총 임차료의 13.75%가 재산세에 귀속된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임차자의 감면액도 포함합니다. 이 감면은 재산세에 귀속되는 액수가 소득의 6%를 초과할 때 소득이 최고 \$150,000인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. 이로써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수 십년 동안 뉴욕주의 특징이 된 높은 부동산 세율의 부담을 안아 온 약 100만 뉴요커들을 위해 공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.

새 감면안은 주지사의 2015-16 집행 예산에 포함될 것입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We Work for the People
Performance * Integrity * Pride